CHANNEL

2026 APRIL Vol.279

연결된 마음,
모두가 빛나는 일터

삼정 KPMG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CHANNEL

발행처 삼정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벽호(031-946-098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

Channel 웹페이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정KPMG 홈페이지에서
'Channel'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Cover Story
소통과 존중의 문화가 꽃피는 삼정KPMG.
이번 호에서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존중의 일터를 담아내고자,
다양한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되는
이미지를 표지에 담았습니다.
서로를 든든히 지지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동료와 호흡을 맞추고 협력하는 문화는
우리 일터의 행복을 만들어갑니다.

건강한 성장

04 **Emerging Trends**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 테크 산업의 미래를 읽다!
10 **Client+** 헬스케어 컴퍼니, 대상웰라이프
12 **Expert's Advice** IEEPA 기반 관세 대법원 판결 관련 기업 대응 전략은?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행복한 일터

16 **삼정人라이프** 협업을 잘 이끄는 삼정인의 소통 노하우는?
18 **People First 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이벤트 '포용의 문화를 만듭니다!'
20 **People First Ⅱ** 삼정인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22 **이동규의 두줄칼럼** 전략적 협업, Collaboration 3.0
24 **心 Care** 세대 갈등, 다르게 보면 무엇이 보일까?
26 **Samjong News** 조직 개편 및 파트너 인사 단행 外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출처: MWC Barcelona 홈페이지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6, 테크 산업의 미래를 읽다!

세계 3대 테크 전시회인 CES(미국)·MWC(스페인)·IFA(독일) 가운데 하나인 MWC(Mobile World Congress)가 3월 2~5일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됐다. '지능의 시대(The IQ Era)'를 주제로 열린 MWC 2026에는 전 세계 205개 국가의 2,900여 개 기업이 참가했다. 통신 네트워크를 넘어 AI(인공지능)를 기반으로 개인 디바이스·가전·모빌리티 등 다채로운 영역에서 소비자의 일상생활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제시됐다. 올해 MWC에 나타난 5대 트렌드를 분석하며, CES와의 차별점 및 유사점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본다.

MWC는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가 주최하는 만큼 세계 3대 테크 전시회 중에서 특히 통신·단말(디바이스)에 초점이 맞춰진 전시회였다. 1987년 1회 행사를 시작한 MWC는 AI 시대를 맞이하며 산업의 외연을 확장했다.

통신 중심에서 다양한 산업으로 외연 확장한 MWC - AI 필두 혁신 기술의 향연

MWC 2026이 CES와 가장 다른 점은, MWC는 통신 산업 중심으로 시작된 전시회인 만큼, AI 시대 속 '통신·모바일 산업의 발전 방향성'이 MWC에서 가시적으로 드러난다는 부분이다. 통신 기업이 강점으로 지닌 차세대 네트워크가 AI 등 혁신 기술과 결합하며, 산업 간 융합 환경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려는 통신·모바일 기업들의 전략을 예의주시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MWC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올해 MWC에 참가했다. 국내에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주요 통신사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SK하이닉스 등 여러 산업의 기업이 참여해 AI 기술력과 네트워크 인프라,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모빌리티 등 혁신 기술을 선보였다.

올해 MWC에서 주목해야 할 5대 핵심 트렌드로 ▲지능형 인프라(Intelligent Infrastructure) ▲피지컬 AI(Physical AI) ▲중국의 기술 전략 ▲통신 기업(Telco)의 테크코(Techco, 기술 중심 통신 기업) 전환 ▲6G(6세대 이동통신)를 꼽을 수 있다.

지능형 인프라 - AI와 위성 통신으로 펼쳐질 차세대 통신 기술

최근 통신 산업에서는 AI의 확산과 피지컬 AI, 스마트홈 등에 힘입어 통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AI와 통신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인프라가 통신 산업의 구조적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영역으로 떠올랐다. MWC 2026에서는 미래 통신 수요 대응을 위해, AI와 위성 통신을 주춧돌로 삼아 차세대 통신 기술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통신 산업의 물리적·지리적 한계를 확장하는 기술 비전이 구체화된 사례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의 경우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를 기반으로 모바일 디바이스와 위성 간 직접 연결을 통한 글로벌 초연결 네트워크 구상을 공유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스페이스X의 그윈 숏웰 최고운영책임자(COO)와 마이클 니콜스 수석부사장은 위성 통신의 확장성과 상용화 가능성을 강조했다.
미국 기술 스타트업 타라(Taara)는 근적외선 빛을 정밀 제어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 기반 무선통신 기술을 선보였다. 반도체 칩을 활용해 빛으로 신호를 송수신하는 방식으로, 기존 전파 중심 무선통신의 물리적 제약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 기술로 평가된다.

피지컬 AI - AI 기반 스마트 디바이스 및 로봇 제품 부각

올해 1월 개최된 CES와 3월 MWC의 유사점으로는 두 전시회에서 모두 피지컬 AI가 각광을 받았다는 것을 꼽을 수 있다. MWC에서도 생성형 AI를 넘어 실제 물리적 환경에서 인지·판단·행동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구현 사례가 전면에 드러나며, 2026년이 피지컬 AI 본격화의 원년이라는 측면이 부각되었다. AI가 스마트폰, 로봇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탑재되며 물리적 공간에서 사용자와 직접 상호작용을 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이를 통해 일상 속 편의를 제공하는 피지컬 AI 영역이 확대되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LG유플러스는 국내 기업인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에 LG유플러스 AI 에이전트인 '익시오'를 결합하여, 고객 일상의 편의를 개선하는 상황을 시연했다. 중국 아너(2020년 중국 화웨이에서 분사한 기업)는 AI 기반 로봇폰을 공개했다. 또한 아너는 쇼핑 보조, 작업장 점검, 동반자형 지원 서비스 제공 목적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했다. 이와 같은 기업 사례를 통해 디바이스 중심 AI에서 공간·행동 기반 AI로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측면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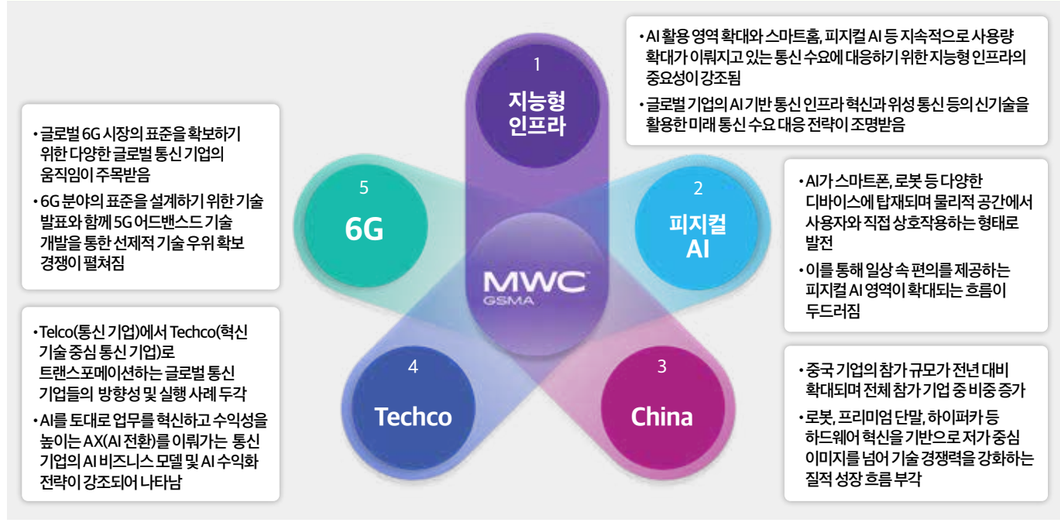
CES 대신 MWC 택한 중국 기업들, 커지는 차이나 파워

최근 수년간 미국 CES에는 참여하지 않은 중국 기업 화웨이, 샤오미 등이 MWC에는 참석하고 있다는 점도 CES와는 차별화된 주요 관전 포인트이다. 중국 기업들은 MWC 2026에서 프리미엄 단말의 온디바이스 AI 고도화와 전력·산업 인프라의 AI 적용 확대, 휴머노이드 등 피지컬 AI로의 확장을 동시에 보여줬다. 모바일을 넘어 AI 기반 실물 및 인프라 경쟁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는 흐름이 중국 기업들

출처: LG유플러스 보도자료

1. LG유플러스, 음성 기반 '익시오 프로(ixi-O Pro)'를 중심으로 능동형 AI 서비스와 로봇 결합 '피지컬 AI' 확장 비전 제시

MWC 2026 5대 트렌드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출처: 아너 보도자료 2

출처: 샤오미 보도자료 3

출처: 화웨이 보도자료 4

출처: SK텔레콤 뉴스룸 5

출처: KT 보도자료 6

7 출처: 엔비디아

2. 아너(2020년 화웨이에서 분사), 스마트폰을 넘어 AI 기반 로봇폰·휴머노이드 등 '물리적 경험 중심 AI'로 확장, 하드웨어 차별화 강화
3. 샤오미, 전기 하이퍼카 '샤오미 비전 그란 투리스모' 공개와 함께 사람 × 자동차 × 집 (Human × Car × Home) 통합 스마트 생태계와 AI 확장 비전 공유
4. 화웨이, '전방위적인 지능화 촉진(Advancing All Intelligence)'을 주제로 AI 중심 네트워크 전략 및 산업 지능화 사례, 특화 솔루션 공개

출처: 퀄컴 보도자료 8

출처: SK하이닉스 뉴스룸 9

10 출처: 삼성전자 뉴스룸

5. SK텔레콤, AI 인프라와 AI 모델 등 다양한 AI 서비스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전시를 통해 '풀스택 AI' 기술 및 자체 개발 AI 기술로 주목받는 AI 모델 'A.X K1' 등 공개
6. KT, '광화문광장' 테마의 K-컬처 결합 기술 전시. 기업 환경에 적합한 AX(AI 전환) 구현을 위한 운영 체제 '에이전틱 패브릭(Agentic Fabric)'을 공개하며 기업용 AI 시장 공략에 나섬
7. 엔비디아, 통신사 맞춤형 Large Telco Model(LTM) 공개. LTM은 통신 산업 표준 용어를 이해하고 통신 기업의 운영 데이터 분석에 특화되도록 훈련된 300억 개의 파라미터 수준의 AI 모델
8. 퀄컴, 개인형 AI 플랫폼 '스냅드래곤 웨어 엘리트(Snapdragon Wear Elite)' 시제품을 공개하는 등 다가올 AI 시대 6G 환경의 기반 기술을 선보임
9. SK하이닉스, HBM(High Bandwidth Memory)4 제품 등 데이터센터, 모바일, 전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모리 제품 전시. 다양한 산업에 활용 가능한 메모리의 범용성과 기술력을 강조하며 '풀스택 AI Memory Creator'로서의 영향력 강조
10. 삼성전자, 최신 플래그십 스마트폰 제품인 '갤럭시 S26' 시리즈, 3단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트라이폴드', 공간 컴퓨팅 구현 디바이스 '갤럭시 XR' 등을 선보이고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솔루션 시연

사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처럼 MWC는 중국의 AI 혁신 기술 현주소와 미래 발전 방향을 근거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라는 의미를 지닌다.

샤오미는 MWC 2026 개막 직전 '샤오미 17'과 '샤오미 17 울트라' 모델을 공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특히 '샤오미 17 울트라'는 독일 라이카(Leica) 카메라 기술이 적용된 프리미엄 폰으로 주목을 받았다. 샤오미는 또한 콘셉트 전기 하이퍼카 '샤오미 비전 그란 투리스모'를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화웨이는 '전방위적인 지능화 촉진(Advancing All Intelligence)'을 주제로 AI 중심 네트워크 전략을 선보였다. 화웨이는 특히 글로벌 고객 및 파트너사와 함께 개발한 산업 지능화 특화 솔루션을 강조했다. 에이전틱 AI 시대 속 AI를 네트워크 전반에 내재화한 AI 중심 네트워크 솔루션 공개에 주안점을 뒀다.

테크코(Techco) - 통신 기업의 빅테크 기업으로의 도약 전략

글로벌 통신 기업들은 AI를 차세대 수익원으로 삼고, 전통적 통신 기업(Telco)에서 혁신 기술 중심 통신 기업(Techco)으로의 구조적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축적된 가입자 데이터와 네트워크 운영 역량을 정교화해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SK텔레콤은 AI 인프라·모델·서비스 전반을 아우르는 '풀스택(Full-Stack) AI' 전략을 공개했다. 통신 기업의 트랜스포메이션과 함께, 통신 기업과 빅테크 기업 간 협업도 MWC 2026에서 부각되었다. KT는 기업 환경에 적합한 AX(AI Transformation, AI 전환)를 구현하기 위한 운영체제 '에이전틱 패브릭(Agentic Fabric)'을 공개하며 기업용 AI 시장 공략에 나섰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통신사들과 함께 차세대 무선 네트워크를 'AI 네이티브 6G'의 형태로 구축해 나가기로 했고, 아마존웹서비스는 통신 산업의 클라우드 활용 고도화 전략을 공유했다.

통신 기술 혁신의 장 - 6G 시장 표준 확보 위한 경쟁과 협력

AI 확산에 따라 초저지연·초대역폭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6G(6세대 이동통신) 표준 선점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도 가시화됐다. SK텔레콤은 6G 기술 방향성을 담은 백서를 발표했으며, 퀄컴은 6G 환경에 적용 가능한 반도체 시제품을 공개했다. 에릭슨은 애플, 미디어텍 등과 협업하여 6G 시대에 활용 가능한 스펙트럼 공유 기술과 데이터 콜 기술 시연을 선보이며 주목받았다.

아울러 국내 기업들은 AI 인프라, 반도체, 프리미엄 단말 기술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입증했다. SK하이닉스는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제품인 HBM4를 공개했으며, 삼성전자는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를 선보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을 강화한 디스플레이 기술 'LEAD 2.0'을 소개했다.

MWC의 핵심 트렌드에서 나타났듯이, AI가 통신·반도체·로보틱스를 관통하는 산업 근간의 인프라로서 자리 잡는 시점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이 중차대하다. 테크 생태계의 지형이 재편되고 있는 가운데, 빅테크와 통신 기업 간 경쟁과 협업이 동시에 심화되고 있다. 한국 기업은 기술·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이해를 바탕으로 실행력이 동반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From Telco(통신 기업) to Techco(혁신 기술 중심 통신 기업) 전략

Techco로 도약하는 통신 기업들은 인사이트 기반 실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객경험 중심의 비즈니스 모델 설계, 리스크 대응 역량 중심 운영 및 공급망 고도화, 통합 파트너 및 제휴 생태계 강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펼치고 있음

	수평적 솔루션 E2E(End-to-End) 이용자 중심 솔루션	수직적 솔루션 산업별 맞춤형 솔루션
What		
Segments	B2C	B2B
Services	디지털 및 AX(AI 전환) 서비스 가정용 자동화 솔루션, 보안, 게임 등	ICT 서비스 사이버 보안, 클라우드 등
Business Support Systems (BSS)	고객경험 중심 디지털 플랫폼 / 풀스택(Full-Stack) 구조의 프로세스	외부 서비스 통합 운영 / 디지털 마케팅
Operational Support Systems (OSS)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자원의 실시간 통합 관리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중심 설계
AI/ML(머신러닝) & Automation	• 가변적 가격 구조 • 차선책 모색	• 운영 최적화 • 생성형 AI / • 프로세스 마이닝 • Low-code 자동화
People & Capabilities	• 제품 디자인 • 역량 혁신	• 소비자 데이터 분석 • 소비자 경험(CX) / • Agile 방법론 • 이용자 경험(UX)
Strategic Metrics	• 고객 서비스 • 이탈률 관리	• 고객생애가치(CLV) 극대화 • 신규 서비스 도입 시간 단축

Source : KPMG Global, 삼정KPMG 경제연구원

*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칼럼에 관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테크·미디어·통신산업본부 강인혜 전무
02-2112-0363
ikang@kr.kpmg.com

경제연구원 이효정 상무
02-2112-6744
hyojunglee@kr.kpmg.com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생애주기 및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뉴트리션 솔루션을 제공하는 헬스케어 컴퍼니,

대상웰라이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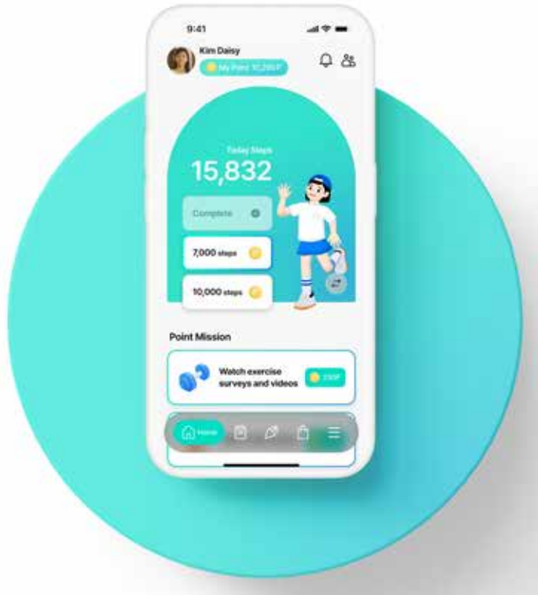
대상웰라이프

Diabetes Pro

Family Healthcare App
Specialized for Diabetes Management

App Store Google Play

CES Innovation Awards 2026 Honoree



2018년 설립된 대상웰라이프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과의 지속적인 임상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의 건강을 위한 해답을 모색해왔다. 그 결과 다양한 환자 맞춤형 영양조제식품을 국내 최초로 선보이며 시장에서 제품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기술보다 건강'을 목표로 최신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 맞춤형 건강식품 연구와 스마트 생산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생애주기와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시하며 새로운 건강관리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당프로 2.0', CES 2026 혁신상 수상

대상웰라이프의 만성질환 관리 플랫폼 '당프로 2.0'이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6에서 혁신상을 수상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식품 기업의 디지털 플랫폼 기술이 CES 혁신상을 받은 것은 한국 최초 사례이자 세계적으로도 드문 일이다. 이번 수상은 대상웰라이프가 추진해 온 디지털 헬스케어 전환 전략이 국제적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대상웰라이프는 2022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을 선포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를 본격적으로 확장했다. 혈당 관리 앱 시장에는 이미 다양한 서비스가 존재했지만, 대상웰라이프는 뉴트리션 전문성과 플랫폼 기술의 결합을 통해 차별화된 방향성을 모색했다. 2023년에는 당뇨 특화 AI 기업 렉스소프트를 인수해 개인건강기록(PHR) 분석 역량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당프로는 단순 기록 기능을 넘어 혈당 변동성 예측과 맞춤형 영양 솔루션 제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고도화됐다. 특히 당프로 2.0은 기획 단계에서 CGM(연속혈당측정기)의 불편함을 줄이면서도 사용자가 안정적으로 혈당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했다. 약 2주간의 CGM 혈당 데이터와 함께 '뉴케어 당플랜' 등 자사 제품 섭취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방식을 적용해 특정 식단과 생활 패턴을

1

전제로 CGM 없이도 혈당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는 일반 CGM이 제공하지 못하는 제품 기반 데이터 인사이트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고객 경험 향상은 물론 제품 사용성과 서비스 연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당프로 2.0은 사용자별 혈당 반응, 식습관, 활동 패턴 등 미세한 신체 반응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한다. AI 기반 영양 컨설팅 자동화 기능을 통해 혈당 변화에 적합한 뉴케어 제품 조합과 섭취 타이밍을 제안하며, 사용이 지속될수록 예측 정밀도가 높아지는 피드백 루프 구조 역시 플랫폼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한편 당프로 2.0은 CES 혁신상 외에도 2025년 국내외 주요 어워드에서 총 9관왕을 달성하며 기술력과 UX, 서비스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국내에만 약 600만 명의 당뇨 환자와 1,500만 명의 당뇨 전 단계 인구가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 성장 가능성도 큰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허브 플랫폼 'MyTHS'

대상웰라이프는 당프로 2.0을 넘어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허브 플랫폼 'MyTHS(My Total Health Solution)'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MyTHS는 온라인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의 한계를 넘어 실제 생활 속에서 건강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프라인 연계 확장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플랫폼이다.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건강 데이터를 활용하고, 일상과 연결된 헬스케어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Myth(신화)'와 유사한 이름에서 착안해 그리스 로마 신화 기반 캐릭터를 도입했다. 미션과 루틴을 수행하며 캐릭터와 사용자가 함께 성장하는 게이미피케이션 UI를 구현해 건강관리의 재미와 지속성을 높였다. 여기에 건강검진 결과와 생활 패턴 데이터를 기반으로 다음 행동을 제안하는 AI Tailor 엔진을 탑재해 사용자 맞춤형 건강 가이드도 제공한다. 앞으로 병원, 검진센터, 약국, 피트니스센터 등 오프라인 시설과의 연계를 강화해 디지털과 현실 환경을 연결하는 헬스케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MyTHS는 2026년 상반기 웹 버전, 하반기 모바일 버전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대상웰라이프는 국내 검증 이후 글로벌 인증 요건에 맞춘 시스템을 구축하고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헬스 접근성이 낮은 동남아 지역에서 건강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I와 데이터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서훈교 대상웰라이프 대표는 "이번 CES 혁신상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방향성이 인정받은 결과"라며 "당프로 2.0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경험을 기반으로 MyTHS 개발을 고도화해, 국내 검증을 거쳐 글로벌 시장에서도 통합 라이프케어 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CES 혁신상 수상은 대상웰라이프가 전통적인 건강식품 기업을 넘어 AI와 데이터 기반의 토탈 헬스케어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다. 당프로 2.0과 MyTHS를 중심으로 한 대상웰라이프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은 국내를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2

3

1. 대상웰라이프 당프로 2.0, CES 혁신상 수상 **2·3.** 대상웰라이프 MyTHS Digital Health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IEEPA 기반 관세 대법원 판결 관련 기업 대응 전략은?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기납부 관세의 환급 가능성에 대한 점검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삼정KPMG는 '미국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국내 기업의 관세 환급 전략' 보고서를 발간하며 이번 판결이 국내 수출기업에 미칠 영향과 실무 대응 과제를 정리했다.

* 이 칼럼은 2026년 3월 11일에 기고된 '한경 CFO Insight - IEEPA 기반 관세 대법원 판결 관련 기업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Q 이번 판결의 핵심과 현재 관세·환급 상황은 무엇인가요?

미국 대법원은 2026년 2월 판결(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등)을 통해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관세 부과 권한은 원칙적으로 의회에 있으며, IEEPA의 '수입 규제' 문언만으로 행정부에 광범위한 관세 권한이 위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에 발표한 IEEPA 기반 관세 조치(예: 특정 국가 대상 '마약·불법거래 관련 관세', 전 세계 대상 '상호관세' 등)는 효력과 집행에 중대한 제약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이번 판단은 IEEPA 기반 관세에 한정되며, 철강·알루미늄 등에 대한 제232조 관세나 중국산 제품 중심의 제301조 관세 등 다른 법적 근거에 따른 관세는 직접적인 영향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 직후(2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제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으며, 향후 15%로 관세율 인상이 예상됩니다. 반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월 24일 이후 IEEPA 관세를 징수하지 않도록 수출입전자시스템(ACE) 및 HTSUS 코드 운영을 조정했습니다. 즉, 2월 24일 이후 수입되는 물품에는 IEEPA 관세가 부과·징수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면 '美 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 및 국내 기업의 관세 환급 전략 보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美 연방대법원 IEEPA 기반 관세 판결 결과와 국내 기업의 대응 전략

기납부 관세 환급 가능성 (IEEPA 위법 판단 이후)

- 환급은 일괄 자동보다 수입자 신고 건(Entry)별 절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사전 점검/준비가 핵심
- 미국은 Entry별 Liquidation(통상 신고 후 약 314일) 구조로, Liquidation 전·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짐
- Liquidation 전: 사후 정정(Post Summery Correction PSC), Liquidation 후: Protest/ 소송 중심 대응 필요

무역법 122조에 따른 임시 할증 관세 부과 및 불확실성 확대

- 무역법 122조에 따라 할증 관세(현재 10%, 최대 15%) 150일 한시 부과
- 150일 경과 후 무역법 301조, 232조 등 다른 법적 수단 활용 가능성 대두
- 환급 이슈와 별개로 추가 관세를 반영한 운영 대응(가격/조건/공급망) 필요

글로벌 공급망 관점 (통상 전략 포인트)

- 무역법 122조 10% 임시 할증으로 생산·조달·출하지에 따라 총 관세 부담이 즉시 달라지는 구조
- USMCA 무관세 반입 요건 충족 여부가 122조 적용/비적용을 가르는 핵심 변수
- 품목·공급망별 원산지/증빙/신고 체계 상시 점검 및 모니터링 필요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통관·재무·공급망 관점의 통합 점검 필요

01 Entry별 관세 납부 내역 점검 및 문서화 (소명 대비)

02 Entry별 Liquidation 상태 확인 후 PSC/Protest 대응

03 가격·계약조건·원산지·공급망 점검을 위한 선제 대응

출처: 삼정KPMG

Q 그렇다면, 기업은 어떤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결 이후 2026년 3월 2일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IEEPA 관세 사건에 대해 Mandate의 즉시 발령을 명령했습니다. 정부의 발령 정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하급심 판단의 효력이 곧바로 적용됐습니다. 이어 3월 4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에 대해 미청산 엔트리는 IEEPA 관세를 제외해 청산하고, 이미 청산된 건은 재청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특정 원고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수입자에게 적용 가능한 보편적 구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환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절차는 CBP의 후속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단은 IEEPA에 한정되므로 제232조 및 제301조 관세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기업의 대응은 크게 계좌·서류 준비, 행정구제(PSC/Protest), 사법구제(소송)의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환급청구권 구조를 점검해야 합니다. DDP 거래에서는 관세 환급권이 통관상 수입자(IOR)에게 귀속될 수 있으므로, 계약을 통해 환급금 귀속과 정산 방식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필요 시 Foreign IOR 등록 또는 환급금 반환 구조를 사전에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환급을 위한 실무 준비가 중요합니다. ACE 접근 권한과 환급계좌(ACH)를 점검하고, 통관 서류와 엔트리별 관세 납부 내역 및 청산 상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환급 수령 주체, 비용 처리 방식 등 내부 프로세스를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셋째, 청산 상태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 미청산 건 : PSC(사후정정신고)를 통한 수정
▲ 청산 완료 건 : Protest(이의신청)를 통한 환급 청구
특히 Protest는 청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해야 하므로 기한 관리가 핵심입니다.

넷째, 리스크 점검과 사후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환급 과정에서 CBP의 검증이 강화될 수 있으므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 등 통관 전반의 정합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CBP의 CSMS 지침과 법원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과 환급 명령은 수입업체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지만, 실제 환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단계별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기한 관리와 내부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CONTACT US
관세통상자문 리더 김태주 전무
02-2112-7448
taejookim@kr.kpmg.com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알아두면 쓸데 있는 시사·경제 용어 사전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는 새로운 용어와 개념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국제 정세와 산업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두 가지 키워드를 살펴보려 한다. 바로 미국 주도로 출범한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체와 인공지능 시대를 이끌 차세대 통신 기술 6G이다. 첨단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광물 확보 전략부터 AI 시대의 '초연결 네트워크'로 주목받는 6세대 이동통신까지 함께 알아본다.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광물 방패 포지 이니셔티브(FORGE)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위 산업 수요가 급증하면서 핵심 광물 확보는 국가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요. 특히 지난해 미·중 관세 갈등 과정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로 타격을 받은 미국은 동맹국과의 공동 투자, 정보 공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지난 2월 4일,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미 국무부에서 핵심 광물 장관급 회의를 주재하며 '포지 이니셔티브(FORGE Initiative)' 출범을 공식화했어요.

포지 이니셔티브의 정식 명칭은 '지전략적 자원협력 포럼(Forum on Resource Geostrategic Engagement)'으로, 영문 약자를 따 '포지(FORGE)'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대장간'을 의미하는 포지처럼 리튬·니켈·코발트·희토류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을 결집해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협력체는 2022년 출범한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을 재편한 것으로, 한국을 포함한 G7과 EU 등 17개국이 참여합니다. 특히 한국은 2024년부터 의장을 맡아 2026년 6월까지 포지 의장국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고요.

ChatGPT image

한편 우리나라는 2025년 12월 미국이 주도한 AI·반도체 광물 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이 협력체는 핵심 광물부터 첨단 제조, 반도체, AI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실리콘 공급망 구축을 목표로 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고 해요.

AI 지능에 속도를 더한 AI 고속도로 6G(6세대 이동통신)

5G가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는 이미 6G 기술 선점을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Mobile World Congress) 2026에서도 6G가 핵심 화두로 떠올랐어요. 6G는 단순히 통신 속도를 높이는 기술이 아니라 AI(인공지능)와 통신이 결합된 지능형 네트워크입니다. 6G는 최대 1Tbps에 달하는 데이터 전송 속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5G 대비 약 100배 수준으로 AI를 더 빠르고 똑똑하게 작동하게 하는 차세대 통신 기술이에요.

ChatGPT image

우리 기업들도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6G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MWC 2026 현장에서 차세대 지능형 네트워크 산업 협력체인 'AI 네트워크 얼라이언스(AINA)' 출범을 발표했습니다. AINA는 2028년 6G 표준 완성과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초고성능·초지능화 네트워크 구축과 산업 생태계 확대를 추진하는 협력체입니다. KT가 대표 의장을 맡았으며 SK텔레콤,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에릭슨, 노키아,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총 34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약 5% 수준인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Happy Workplace

행복한 일터

16 삼정人라이프
협업을 잘 이끄는 삼정인의 소통 노하우는?

18 People First Ⅰ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이벤트 '포용의 문화를 만듭니다!'

20 People First Ⅱ
삼정인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22 이동규의 두줄칼럼
전략적 협업, Collaboration 3.0

24 心 Care
세대 갈등, 다르게 보면 무엇이 보일까?

26 Samjong News
조직 개편 및 파트너 인사 단행 外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협업을 잘 이끄는
삼정인의 소통 노하우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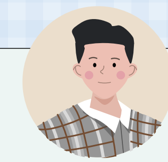
다양한 본부가 함께 일하는 환경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드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소통의 꽃을 피우며 협업을 만들어 가는 삼정인들의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삼정인들은 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어떤 소통 방법을 실천하고 있을까? 실제 업무 현장에서 경험한 삼정인만의 소통 꿀팁을 공유한다.

철저한 중간보고를 통한 업무 공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나동욱 Manager (Tax)

저는 협업하는 동료들을 위해 중간보고를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업무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더라도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하며,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고 일정에 맞춰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고자 합니다.

그리고 협업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료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정리하고, 번거로운 작업도 먼저 나서서 수행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 시간과 에너지가 더 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이러한 배려는 팀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더 좋은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고객사 세무조사를 대리하던 당시, 수만 장의 증빙과 소명 자료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원거리 조사 현장에서 각자 역할을 나누어 업무를 진행했지만, 먼저 일을 마친 팀원들 역시 남아 있는 동료를 자발적으로 도우며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그 결과 고객사로부터 "역시 삼정KPMG는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더 큰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먼저 듣고 경청하기!

최준성 상무 (IM3)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리뷰 사항을 전달하기 전, 업무를 수행한 직원의 이야기를 먼저 듣습니다. 제 생각을 전달하기에 앞서 작업하신 분의 의도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먼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소통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실무 과정과 산출물의 결과를 함께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듣는 데 집중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고객의 기대, 이론적 정합성,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 사이의 간극을 질문을 통해 좁혀가다 보면, 난관이라 여겼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퀵콜로 완성하는 맥락 공유

김예진 대리 (Q&RM-RM)

저는 단순히 0.1초 만에 '네'라고 답하기보다, 즉시 1분 내외의 '퀵콜(Quick Call)'을 제안해 업무의 맥락을 선제적으로 정렬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우선 순위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협업의 몰입도와 정확도를 동시에 높이고 있어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통 키워드는 '맥락 공유'입니다. 단순히 해야 할 일(What)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그 배경과 목적(Why)까지 함께 이해할 때 구성원들은 보다 주도적으로 움직이며 협업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메신저 상에서 의견이 길어지며 업무가 지연되던 상황에서 "지금 바로 퀵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라는 제안으로 짧은 구두 협의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 몇 분간의 대화로 핵심 쟁점을 빠르게 정리할 수 있었고, 프로젝트 역시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업무 진행 상황 공유와 공감이 중요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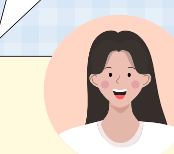
이정우 Analyst (Deal Advisory1)

팀원 간 업무 진행 상황을 지속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상급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조율할 수 있고, 팀원 역시 전체 흐름을 이해하며 업무 타임라인을 보다 명확히 예측할 수 있어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협업의 기반은 '공감'이라고 느낍니다. 직급 간 공감이 부족하면 관계는 단순히 상급자와 팀원에 머무르기 쉽지만, 서로의 입장과 어려움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동료의식이 형성됩니다. 상급자의 고민과 팀원의 부담을 함께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협업은 더욱 자연스럽게 이뤄집니다. 이를 위해 업무 지시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진행 과정에서는 상급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통의 축적이 팀의 신뢰를 높이고,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질문보다 생각한 답을 먼저 제시하기

박한신 Associate (ICE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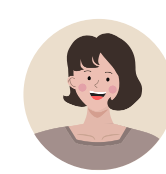
바로 질문하는 것보다 제가 생각하는 답을 먼저 제시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것은 상대방에게 사고의 부담을 넘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논의의 범위가 명확해지고 의사결정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집니다.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마찰은 서로 알고 있는 정보의 양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될 때 비로소 소모적인 오해와 재작업이 사라집니다. 또한, 무엇을 더 할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덜어낼 것인가에 집중했을 때 복잡한 프로젝트가 마법처럼 풀린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협업이 과도한 피드백과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로 인해 방향성을 잃기도 합니다. 저는 당시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을 나열한 뒤, 프로젝트의 본질적 가치에 기여하지 않는 80%를 과감히 제거하는 역발상을 제안했습니다. 복잡성을 더하는 것이 유능함이라 착각하는 통념을 깨고, 단순함의 힘으로 난관을 돌파했습니다.



라포 형성과 배려가 중요!

한지선 S.Senior (ICE3)

저는 팀원들과의 신뢰를 쌓고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이 곧 저만의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약속도 성실히 지키고, 필요한 정보는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팀원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서로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고, 보다 효율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협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배려'입니다. 바쁜 시기에 급하게 업무를 요청하거나 요청받는 상황에서도,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만으로도 협업의 분위기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작은 배려가 쌓이면 팀의 신뢰를 높이고, 결국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인차지의 명확한 우선순위 정리 덕분에 여러 프로젝트 속에서도 혼선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좋은 협업의 출발점이 조율과 배려 있는 소통임을 깨달았습니다.



팀즈 채널을 활용한 투명한 정보 공유

정나현 Director (FC)

공통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팀즈 채널을 신속히 개설하고, 1:1 메신저 사용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정보를 기반으로 소통하며 조율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효과였습니다. 타 본부와 협업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본부별로 채널을 나누고 자료를 별도로 이메일로 취합해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면,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업무 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면 실무 담당자부터 파트너까지 모두가 하나의 채널에서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력 관리, 자료 공유, 오류 수정, 의사결정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뤄졌습니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이벤트
포용의 문화를 만듭니다!

3월 8일은 유엔(UN)에서 지정한 '세계 여성의 날'로, 전 세계 여성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성평등을 향한 공통의 목표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날이다. 매년 KPMG는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 삶에서 경험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공유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세계 여성의 날'의 의미를 살펴보고, 삼정인들의 포용성과 다양성에 관한 경험을 들어보려 한다. 아울러 삼정KPMG가 추구하는 Inclusion Diversity & Equity(ID&E) 문화도 함께 살펴본다.

Voice of Inclusion: 포용의 문화를 위한 설문 이벤트 전개

KPMG는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해 Inclusion & Diversity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UN은 '모든 여성을 위한 권리, 정의, 행동(Rights. Justice. Action. For ALL Women and Girls)'을 주제로 선정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목소리를 내고 존중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행동(Action)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PMG 역시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일터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포용(Inclusion)'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삼정KPMG 구성원들은 포용의 문화를 위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삼정인이 경험하고 느낀 포용의 문화!

포용적인 문화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편안하게 소통할 때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우리 Tax6본부를 보니, '열린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는 문화가 우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본부는 모든 구성원이 평등하게 의견을 나누며 실무적 해답을 함께 찾아가는 문화가 참 매력적입니다. 작년 생소했던 과세가격 신고제도에 대응할 때도, 연차와 상관없이 수평적으로 의견을 더하며 최선의 솔루션을 도출했던 과정은 우리 본부 특유의 포용적인 팀워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로서 실력을 키우면서도 서로에 대한 배려를 놓지 않는 Tax6본부! 자유로운 목소리가 존중받는 이 공간에서 함께 일할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김은미 S.Senior (Tax6)

업무 피드백을 주기 전, 저는 먼저 제 초기 방향 제시가 충분히 명확했는지 돌아봅니다. 바쁜 프로젝트 환경 속에서 팀원 각자의 스타일과 강점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나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상대의 속도와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결과의 오류를 바로잡기보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고민과 과정을 먼저 이해하려 합니다. 또한 즉각적인 피드백보다, 상대의 연차와 업무 부담을 고려해 어떻게 전달해야 성장의 동력으로 받아들여질지 고민한 후 대화를 시작합니다. 피드백은 지시가 아니라 맥락을 공유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수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잘한 점을 먼저 짚은 뒤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할 때, 비로소 존중과 성장을 함께 담은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정초현 S.Manager (Deal Advisory2)

삼정KPMG만의 ID&E 문화는? 포용과 다양성으로 완성하는 지속가능한 일터

삼정KPMG는 Inclusion Diversity & Equity(ID&E) 가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포용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먼저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주기 변화에 맞춰 임직원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와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임신부 근로시간 준수 및 단축, 출산 전후 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법정 육아휴직 1년에 더해 추가로 1년을 자체적으로 지원해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결혼 5주년 기념 선물, 초등학교 입학 선물, 가족 초청 행사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며 행복한 일터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아울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2018년 업계 최초로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파란행복'을 설립해 8년간 의미 있는 동행을 이어오고 있다. 다양한 직무 개발을 통해 2026년 현재 61명의 중증 장애인 직원에게 4개 직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이고 따뜻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비영리 사단법인 'WIN(리더들을 키우는 여성 리더들의 네트워크)'을 후원하며,

FY25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수료식

조직을 넘어 국내 기업 전반의 우수 여성 인재 육성과 포용적 리더십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 Inclusive Leadership 개발, WCD(세계여성이사협회) 협력, KNOW(여성 직원 네트워크) 운영,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진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 임직원의 네트워크 형성과 커리어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삼정KPMG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5th Wedding Anniversary!
삼정인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설렘과 기쁨으로 시작된 인생의 중요한 여정, 결혼. 삼정KPMG는 Benefits Program의 일환으로 결혼 5주년을 맞이한 구성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전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그 특별한 순간을 함께한 삼정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이정표마다, 가장 먼저 달려와 축하해 주는 삼정KPMG!

서희연 (이기영 상무 배우자, Deal Advisory3)

안녕하세요. 이기영 회계사의 아내 서희연입니다. 저는 한의사이자 25개월, 3개월 된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지난 12월, 우리 부부의 결혼 5주년을 기념해 보내주신 화사한 꽃바구니와 호텔 상품권은 분주한 일상을 보내던 우리 가족에게 깜짝선물 같은 격려와 기쁨이었습니다. 덕분에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난 5년의 소중한 시간을 기쁘게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실 회계사라는 직업 특성상 남편이 밤늦게까지 업무에 몰입하며, 매 순간 책임감 있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늘 곁에서 지켜보곤 합니다. 아내로서 때로는 남편의 노고가 안쓰러울 때도 있지만, 그 열정을 지지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는 든든한 일터가 있다는 사실에 늘 감사하고 뿌듯한 마음입니다.

돌이켜보면 삼정KPMG는 우리 부부 인생의 중요한 이정표마다 늘 가장 먼저 달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부부로서 첫발을 내딛던 결혼식 날부터, 두 아이가 우리 품에 안기던 출산의 순간까지, 언제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 가족의 삶이 회사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느끼며, 회사가 무척 가깝고 친밀하게 다가옵니다. 직원의 가족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회사의 문화 덕분에 남편도 더욱 자부심을 느끼며 즐겁게 업무에 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의 여정에 늘 기분 좋은 에너지를 더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기영 회계사가 회사와 함께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 또한 가정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삼정KPMG의 무궁한 발전과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즌을 앞두고, 서로를 응원하며!

정유영 과장 (ADC)

연말과 겨울은 회계법인에 몸담고 있는 가족들에게 늘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맞이하는 결혼기념일은 우리 부부에게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곧 시작될 바쁜 시즌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가을, 결혼 5주년에는 회사에서 보내주신 꽃바구니와 호텔 상품권 덕분에 더욱 따뜻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함께 전달된 꽃바구니는 색감도 다채롭고 꽃들도 싱싱해, 받는 순간 기분이 한층 밝아졌던 기억이 납니다. 바쁜 일정이 시작되기 전, 남편과 아이와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이번 시즌도 잘 버텨보자"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5주년을 기억하고 챙겨 주신 이번 선물은 삼정KPMG이기에 받을 수 있었던 특별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더욱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번 시즌도 누구보다 바쁘게 보냈을 남편에게 진심으로 고생 많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 축하해 주신 회사의 따뜻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마움을 전할 수 있었던 특별한 하루

김재현 과장 (ITS)

회사에서 마련해 주신 결혼 5주년 축하 이벤트 덕분에 배우자와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 기념일을 조용히 지나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결혼 후 함께해 온 시간을 돌아볼 수 있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준비해 주신 아름다운 꽃바구니와 선물을 전하며 그동안 함께해 준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고, 아내 역시 따뜻한 축하에 깊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 주신 회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삼정인 결혼 5주년 기념 선물 어떻게 받나요?

임직원의 결혼 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법인에서 선물을 보내 드리는 프로그램으로 결혼기념일 정보를 등록한 임직원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문의 총무팀 황규찬 과장
gyuchanhwang@kr.kpmg.com
김범규 대리
beomkuekim@kr.kpmg.com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전략적 협업, Collaboration 3.0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흔히 아프리카 속담으로 알려진 이 말은 협업의 본질을 간결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오늘날 현란한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에서 말하는 협업은 더 이상 단순하고 진부한 '함께 일하기'가 아니다. 과거의 협업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보완'이었다면, 오늘의 협업은 서로의 무기를 합쳐 시장을 베어버리는 '공격적 융합'이다. 이것은 전략 차원에서 보면 돕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며, 착한 협업에서 '전략적 결합'으로의 진화다.

중요한 것은 내부를 닫지 않는 전략적 투명성(Strategic Transparency)이다. 서로의 치명적 결핍을 채우기 위한 뛰어난 파트너와의 개방적 결합이 없는 조직은 결국 고립된 섬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협업은 미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집단지성 전략이다. 한마디로 서로 돕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다.

Cross-functional Dynamics 시대

과거의 비즈니스는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T자형 인재'들이 각자의 칸막이(Silo)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조직은 굴러갔다. 그러나 AI와 초연결이 지배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칸막이는 조직의 숨통을 조이는 관(棺)이 되고 있다. AI와 네트워크가 주도하는 시장에서 협업 능력은 단순한 역량이 아니라 생존 지수다. 이미 업무 지식의 반감기는 2년 이하로 짧아졌고, 10년 전의 베스트 프랙티스는 오늘의 리스크로 변했다.

그 결과 최근 글로벌경영 현장에서 재조명되고 있는 협업은 'Cross-functional Dynamics'라는 개념으로 재탄생되고 있다. 협업의 진화 단계로 보면, Collaboration 1.0(단순 협업), 2.0(기능 간 통합)이었다면, 3.0은 AI·데이터·사람이 하나의 리듬으로 움직이는 <초동기화(Hyper-Sync)>의 단계다. 이것은 연결된 시스템 자체가 엔진이 되어 새로운 업(業)을 창출하는 강력한 경쟁구조다.

특히 탈(脫)전공 시대를 열어젖힌 AI 초기술융합 혁명은 기존의 협업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우선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문가'라 부르지 않고 '병목(Bottleneck)'이라 불리고 있다. 이미 자신의 전공을 넘어 타 부서의 언어를 이해하고 연결하는 '커넥터(Connector)'들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인재 5.0, 즉 'M자형 멀티 스페셜리스트'가 조직의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참고로 인재 선발에 가장 까다롭다고 정평이 난 구글은 '종합인지능력, 직무 관련 지식, 리더십, 그리고 협업 능력'을 핵심 채용 기준으로 삼고, 협업하지 않는 천재는 뽑지 않는다.

Case Study: 전략적 결합의 뉴노멀

(1) 엔비디아 × 폭스콘: AI 팩토리 연합

2025년 말부터 본격화된 이들의 협업은 단순한 부품공급 관계가 아니다. 엔비디아(NVIDIA)는 설계 역량을, 폭스콘(Foxconn)은 제조 데이터와 공장 인프라를 제공해 'AI가 AI를 만드는 공장'을 구축했다. 이것은 칩 설계자와 제조 거인이 만나 전통적 제조업의 종말을 선언한 것이다. 이들이 손을 잡는 순간, 협업하지 못한 경쟁사들은 단순 조립 하청업체로 전락하거나 시장에서 증발했다.

AI 기반 신약 개발 '공동 혁신 랩'을 발표한 일라이 릴리와 엔비디아. 출처: NVIDIA Blog

(2) Eli Lilly x AI 스타트업: 신약 가속기의 탄생

일라이 릴리(Eli Lilly)는 자사의 연구 독점을 풀고, 글로벌 AI 바이오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후보물질 발굴에 필요한 시간을 1/10로 단축했다. 이는 단순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상호 동기화를 실현한 전략적 결합이었다. 닫힌 연구소는 뒤처졌고, 열린 생태계만이 시장을 주도했다.

21세기 진정한 초협업 Collaboration 3.0은 KPMG와 같은 초우량 기업문화의 양대 축인 완벽한 품질(Quality)을 갖춘 독립체들이 신뢰(Trust)를 기반으로 자발적 동기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이다. 최종 시너지의 핵심 원료인 다양성을 채굴하는 최적의 방정식은 나이·문화·학문을 섞는 것이다.

따라서 AI 시대,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향은 과감한 '개방'과 '연결'이다. 우선 각자의 '전문성은 높이고, 담장은 낮추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나 결국 가장 큰 문제의 칸막이는 바로 자신의 마음의 칸막이가 아닐 수 없다. 지금 당신의 조직은 서로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를 가로막고 있는가?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칼럼니스트
베스트셀러 저자

인기 칼럼니스트(조선일보·헤럴드경제/국제 PEN클럽 정회원) 및 베스트셀러 저자이자 초대형 교보 〈광화문글판〉 선정 작가이다. 현재 서울벤처대학원 초빙교수,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고문, 대통령직속 민주평통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유니크한 언어의 쇼츠, 「두줄칼럼」은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으로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 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세대 갈등, 다르게 보면 무엇이 보일까?

세대 갈등으로 보이는 조직 내 간극은 사실 '세대'가 아니라 서로 다른 인식과 일하는 방식에서 비롯된 문제일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세대를 이해하는 것을 넘어, 서로의 방식을 말할 수 있는 언어와 환경이 진정한 해법이 될 수 있음을 심리 전문가의 시각에서 짚어본다.

세대 차이가 아닌 소통의 단절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회사의 리더십은 어떤가, 인사는 공정한가, 보상은 적절한가, 문화는 좋은가"라는 질문에 CEO와 임원의 90%는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직원들은 단 10%만이 긍정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간극을 우리는 흔히 '세대 갈등'이라고 부릅니다. 동상이몽, 같은 공간에서 일하지만 서로의 생각은 이토록 다릅니다.

이 간극을 해소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번은 솔직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낸 경우는 얼마나 있었을까요? 세대 갈등을 '세대 차이'로 프레이밍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잘못된 처방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MZ는 이런 특성이 있고, 베이비부머는 저런 가치관을 가졌다"는 설명은 분류는 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고정된 카테고리에 가두는 부작용을 낳습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선 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같은 조직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인식 속에 있습니다. 90%와 10%의 간극은 세대 차이가 아니라 소통의 단절입니다. 세대를 이해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조직, 다른 생각: 그 간극을 이해하는 법

첫 번째, 상사는 '꼰대'가 아니라 '생존자'다. 불편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사는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수십 년간 그 조직 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시기에 입사했던 동료와 선배, 동기들도 조직을 떠났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이들이 바로 지금의 상사입니다. 진화생물학에는 생존 편향(Survivorship Bias)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은 것들만 보기 때문에, 살아남지 못한 이들을 잊습니다.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윗사람들은 그 조직의 문화, 평가 기준, 생존 방식에 가장 잘 적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방식은 단순한 '구세대 감각'이 아니라, 그 조직에서 검증된 생존 코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살아남았다'는 사실이 곧 '옳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 생존 방식 자체가 조직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른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복잡한 조직의 역학을 읽는 통찰, 위기를 버텨낸 내성, 성과를 만들어온 실행력. 이것은 단순히 '오래 다닌 것'으로 설명되지 않는 실질적인 역량입니다. 생존자를 이해하라는 것은 그들의 방식을 정당화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읽고 나서 비판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상사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십 년간 검증해 온 자신의 방식이 어느 날 도전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 코드 전체에 대한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한 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방식이 지금도 유효한가. 내가 살아남은 그 조직의 문화가, 지금 이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세대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차이다. 직장 내 갈등의 상당 부분은 세대 차이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보고를 먼저 하고 움직이는 사람과, 결과를 만들고 나서 공유하는 사람. 회의에서 즉각 의견을 내는 사람과, 충분히 생각한 후에만 말하는 사람. 이 차이는 나이와 무관하게 존재합니다. MBTI가 직장에서 유행처럼 번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완벽한 도구는 아니지만 MBTI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일하는가'를 설명하는 공통의 언어를 제공합니다. "팀장님은 왜 보고를 이렇게 자주 요구하지?"가 아니라 "아, J 성향이라 계획과 진행 상황 확인이 중요한 사람이구나"로 이해의 틀이 바뀝니다. 세대차 교육은 상대를 '세대'라는 집단으로 보게 만들지만, 일하는 방식에 관한 대화는 상대를 개인으로 보게 만듭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입니다. 갈등은 집단 간에 발생하지만, 소통은 언제나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이해의 책임은 양쪽에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자칫 아랫사람에게만 이해의 짐을 지우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상사를 이해하라, 생존 코드를 파악하라. 하지만 90%와 10%의 간극을 만든 책임이 아랫사람에게만 있지는 않습니다. 소통의 단절은 개인의 문제이기 이전에 구조의 문제입니다. 불편한 진실을 말했을 때 불이익이 돌아오는 조직, 피드백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는 조직, 다른 방식으로 일하는 사람이 '튀는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조직에서는 아무리 개인이 노력해도 소통의 공간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것은 개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것은 리더의 몫이고, 조직의 책임입니다.

90%와 10%의 간극 앞에서, 윗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세대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그 말을 뒤집으면 이런 질문이 됩니다. 당신은 지금 이 조직이 누군가를 떠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깊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세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해법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일한다, 당신은 어떻게 일하는가'를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언어와 구조를 함께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닐까요?

Profile

설진미

삼정KPMG 전임 심리상담사

성균관대학교에서 임상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고려대학교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 레지던트 과정을 마쳤으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임상심리실에서 슈퍼바이저로 경력을 쌓았다.
현재는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책임연구원으로 10년간 일하며 심리상담, 조직컨설팅, 강좌 및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표준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다양한 조직에 속한 직장인들을 만나 삶의 불안과 고통, 갈등을 성찰하고 성장을 모색해 왔으며, 조직문화를 보다 '건강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데 관심이 있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조직 개편 및 파트너 인사 단행 … 조직 간 협업과 전문성 강화!

삼정KPMG가 조직 개편과 함께 파트너 인사 발령을 단행했다.

먼저, Audit 부문에서는 금융산업 전반의 서비스 및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B&F 3개 본부를 2개 본부로 재편하고, 김민규 부대표를 B&F 산업 리더(Industry Leader) 및 B&F1 본부장으로, 신재준 부대표를 B&F2 본부장으로 각각 임명했다. 또한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E 부문 리더십을 재정비하고, 강인혜 전무를 산업 리더(Industry Leader)로 선임했으며 민성진 전무와 오헌창 부대표를 각각 ICE1, ICE2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IGH 본부는 IM1과 IM4로 통합해 조직 간 시너지를 강화했다. ESG 공시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ESG CoE를 독립시키고, 황재남 부대표를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이와 함께 AI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udit AI Center인 'Audit AX 본부'를 신설하고, 박창남 상무를 리더로 선임했다.

Tax 부문에서는 Tax5 본부장에 이성욱 전무를 새롭게 임명했으며, 김경미 부대표는 Tax 임원실로 이동해 Risk Management Partner(RMP) 역할을 맡는다. CS1 부문 역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다. RC 본부장에는 양현석 전무가, FC 본부장에는 김현일 전무가 각각 임명됐다.

한편, 삼정KPMG는 이번 조직 개편과 인사를 통해 조직 간 협업과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한 성장과 신뢰받는 조직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신임 본부장 및 리더

김민규 부대표
(B&F Industry Leader & B&F1 본부장)

신재준 부대표
(B&F2 본부장)

강인혜 전무
(ICE Industry Leader & ICE3 본부장)

민성진 전무
(ICE1 본부장)

오헌창 부대표
(ICE2 본부장)

황재남 부대표
(ESG CoE 본부장, IM1 본부장)

박창남 상무
(Audit AX Leader)

이성욱 전무
(Tax5 본부장)

김경미 부대표
(Tax RMP)

양현석 전무
(RC 본부장)

김현일 전무
(FC 본부장)

KPMG, 신임 글로벌 CEO에 게리 윙그로브 선임

3월 23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기업 KPMG는 게리 윙그로브(Gary Wingrove)를 KPMG 인터내셔널의 차기 글로벌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4년이다.

게리 윙그로브는 현재 KPMG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로, KPMG의 글로벌 전략인 'Collective Strategy'의 수립과 실행을 주도해 왔다. 이를 통해 운영 통합, 지역 클러스터링, 글로벌 투자 전략 정비, 전략적 제휴 확대, KPMG 딜리버리 네트워크(KDN) 성장 등 주요 성과를 이끌었다. 또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 도입을 통해 글로벌 조직 혁신을 추진해 왔다. 게리 윙그로브 차기 글로벌 CEO는 "전 세계 뛰어난 KPMG 구성원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구성원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객 요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민첩성과 전문성, AI 기반 솔루션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관리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Value Day' 개최, 조직문화와 핵심 가치를 이해하는 시간!

삼정KPMG는 중간 입사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와 핵심 가치를 이해하고, 빠르게 법인에 적응할 수 있도록 분기별로 'Value Day'를 운영하고 있다. 3월 26일 진행된 이번 Value Day는 'Our Culture Foundations' 세션으로 시작됐다. 해당 세션에서는 KPMG의 조직문화와 일하는 방식을 공유하며, 구성원들이 동일한 기준 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이어진 'Value Talks' 세션에서는 실제 업무 프로젝트 사례를 기반으로 KPMG의 5가지 핵심 가치(Integrity, Excellence, Courage, Together, For Better)가 어떻게 발현되는지를 주제로, 경쟁형 프레젠테이션 방식의 보드게임을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CEO 축하 메시지 세션에서는 김교태 회장이 직접 참석해 중간 입사자들의 입사를 축하하고 따뜻한 환영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울러 삼정KPMG의 비전과 전략 방향을 공유하며, 구성원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미 있는 인사이트를 전달했다.

사랑나눔

따뜻한 나눔으로 희망을! 소아재활치료 지원 활동 전개

삼정KPMG가 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최초 어린이 재활센터인 보바스 어린이재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소아재활치료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장애 어린이를 위한 맞춤형 치료 환경을 개선하고, 소아재활치료를 위한 특수 장비 업그레이드 등을 지원하며, 아이들의 재활 여정에 희망을 전하고, 건강한 회복을 함께 응원해 나가고자 한다.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www.kpmgacademy.co.kr

경영 패러다임 변화 속 지속가능한 성장 아젠다 제시

체계적인 커리큘럼으로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과
산업별, 분야별 인사이트를 포함한 지식 콘텐츠 제공

온라인 지식 콘텐츠 플랫폼

삼정KPMG 아카데미

NEW **IPO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신규 오픈!**

삼정KPMG 아카데미

정규 교육 과정
- 감사위원회 교육 프로그램
-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프로그램
- WCD-KPMG 사외이사 교육 프로그램
- IPO지원센터 교육 프로그램

이슈 브리핑
- 국내외 주요 트렌드와 산업별 이슈를 영상 콘텐츠로 제공

비즈니스 리포트
- KPMG의 발간물과 분야별 분석 보고서 저장소

세미나 다시보기
- 삼정KPMG 주요 세미나 다시보기

접속 방법 www.kpmgacademy.co.kr
포털사이트에서 '삼정KPMG 아카데미' 검색

이용 대상 누구나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이용 가능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 신규 구독 /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2026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